

## 요약

미국은 2023년 기준 대부분의 주에서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뉴햄프셔와 버지니아주는 운전자가 재정적 능력에 대한 증빙 또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했음. 2024년 7월부터는 버지니아주에서도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어 무보험 운전자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함.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뉴햄프셔와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sup>
  -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며, 2023년 기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허용하는 주는 뉴햄프셔와 버지니아주가 유일함
    -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나 금액에 관해서 통일된 규정은 없으며 각 주마다 상이함
  - 뉴햄프셔와 버지니아주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여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일정 수준의 선택권을 제공함
- 뉴햄프셔와 버지니아주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재정적 능력에 대한 증빙 또는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sup>2)</sup>
  - 뉴햄프셔주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적 능력에 대한 증빙을 요구함
    - 재정적 능력의 기준 금액은 신체 상해에 대해 피해자가 1명인 경우 최대 25,000달러, 2명 이상인 경우 50,000달러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25,000달러 등 총 100,000달러의 금액을 충족해야 함<sup>3)</sup>
  - 버지니아주에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면허를 갱신할 때 무보험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수수료로 연간 500달러를 버지니아 차량국에 지불해야 함
    - 동 수수료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그 외 어떠한 보호도 제공하지 않음

1) Yahoofinance(2024. 4), "Minimum car insurance requirements in all 50 U.S. states"

2) MarketWatch(2023. 9. 30), "Why Don't Virginia and New Hampshire Require Car Insurance?"

3) State of New Hampshire Insurance Department(2005), "Your Guide to Understanding Auto Insurance in the Granite State"

- 2024년 7월부터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사고 위험을 낮추고자 버지니아주에서도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하여 무보험 운전자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자 함<sup>4)</sup>
  - 2023년 2월 버지니아주에서 무보험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어 2024년 7월부터 버지니아주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새롭게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할 때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국에 6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3년 내 SR-22 인증서<sup>5)</sup> 취득 등의 규제를 적용받음
  - 동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의 수를 줄여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반면, 2022년 기준 버지니아주 내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은 12.1%였으며 미국 전체 비율인 14%보다 낮아 새로운 법안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 한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로 인해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6)7)</sup>
  -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동차 수리·교체 비용, 의료 비용 등 자동차보험 청구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2022년 7.9%, 2023년 상반기 5.9% 인상됨
  - 미국 내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은 2017년 11.6%에서 2019년 11.1%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이후 팬데믹과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겪으며 많은 주에서 무보험 운전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에는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이 13.9%로 전년 대비 2.8%p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14.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특히 사우스다코타, 뉴햄프셔, 버지니아 등을 포함한 12개 주에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2023년 상반기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이 2022년 하반기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4) The Virginian-Pilot(2024. 4. 19), “All Virginia drivers must have car insurance by July 1 as state drops uninsured fee”  
5) 주에서 요구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주로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운전자에게 필요하며, 동 인증서 제출이 필요하게 된 운전자는 이후 운전 기록에 따라 보험료가 평균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음  
6) J.D.POWER(2023. 9. 13), “As Auto Insurance Premiums Spike, Some American Drivers Choose the Risk of Being Uninsured Over Financial Hardship”  
7) iii(2023), “Facts+Statistics: Uninsured motorists”